

【 해외금융뉴스: 일본 】

니혼생명, 지방은행 전문 방카슈랑스 지원부서 신설

- 일본 최대의 생명보험사인 니혼생명(日本生命)은 대형 보험사로는 최초로 지방은행 방카슈랑스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부서를 신설하기로 함.
 - 현재는 도심지역에 있는 메이저 은행을 중심으로 방카슈랑스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척 여지가 많은 지방에 대한 영업력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3월 25일 ‘금융 법인 제2부’를 신설해 경쟁사보다 먼저 지방은행의 방카슈랑스 판매 지원을하기로 결정함.
 - 이번 내부 조직개편은 지방은행의 방카슈랑스 지원을 역점사업으로 설정하고 지역별로 고객의 특성과 수요를 파악해 각 지역 실정에 맞추어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
 - 또한 지금까지는 금융기관 전용 기업보험 담당자와 방카슈랑스 지원 담당자들이 별도로 존재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지원부서를 일원화해 통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아울러 지방 금융기관과의 제휴 관계를 보다 돈독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음.
- 이번 조치는 최근 은행 창구 판매의 호조를 이어가려는 니혼생명과 새로운 수익원으로써 방카슈랑스를 적극 이용하고자 하는 지방은행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로 서로에게 이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니혼생명은 2008년 4~12월까지 정액연금의 방카슈랑스 판매 건수가 전년동기대비 약 5배 증가한 4만 191건으로 나타나면서 판매 확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대도시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보험판매가 부진한 지방은행에 주목하게 됨.
 - 제2지방은행을 포함해 전국에 100개 이상 있는 지방은행들도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 최근부터 보험상품 판매에 역점을 두기 시작함.
 - 니혼생명은 지방은행들의 경우 도시지역의 메이저 은행보다 고객과의 관계가 특히 긴밀해 이를 이용하면 보험 판매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하고, 지방은행의 방카슈랑스 판매가 정착되면 회사의 안정적인 실적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FujiSankei Business | 3/3)